

# 박람회장서 맺은 인연, '글로벌 우정'으로 이어간다

### 전남 학생들, 온·오프라인 교류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월 중국 방문 문화 체험 예정

전남지역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5월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일

대일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장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글로벌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

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복건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우리가 직접 기획해 국제 교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기자 bigkim@kwangju.co.kr

## 南臺科技大學 訪問

Southern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legations  
東岡大學校 2024. 07. 03.(木)



### 동강대-대만 남태과기대 "우의 다지고 함께 성장"

주덕광 총장 등 5명 방문...1995년 자매결연 후 교직원·학생 교류 활발

#### 12월 남태과기대 55주년 행사 참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자매학교인 대만 남태과기대과학기술대학교와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다.

동강대는 최근 대만 남태과기대 주덕광 총장, 왕후밍 비서실장, 왕계주 국제교류처장, 임교화 국제교류팀장, 전정유 국제교류팀원 등 5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동강대는 지난 1995년 남태과기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7월과 12월 교직원 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오는 12월 12일 남태과기대 55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남태과기대 방문단은 이민숙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간호학과 시설을 살펴보고 학교법인 기념관, 동강대 박물관,

국제교류원과 한국어학당, 글로벌 존 등을 둘러봤다.

남태과기대 주덕광 총장은 "올 12월 창립 55주년을 맞는 우리대학이 30여 년간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은 동강대가 유일하다"며 "특히 이번 동강대 방문이 개인적으로 교수 임용 첫 해외 출장지에 이어 이번 총장 선임 후 첫 국제 교류 학교 방문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민숙 총장은 "남태과기대는 최근 스마트 제조 기술 센터, 스마트 건강 의료 기술센터, 스마트 전기 자동차 기술 센터, 스마트 그린 에너지 기술센터, 스포츠 기술 센터 등 새로운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시대 새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수한 남태과기대와 교류를 통해 두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깊은 우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각국의 국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 광주공업고, '광주형 마이스터고' 최종 지정

광주시교육청, 지역 직업교육 선도모델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직업교육 선도모델 구축 정책인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광주공업고등학교를 최종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미래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 분야를 융합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로컬 마이스터고 형태의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기존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가 가진 특징과 장점을 특성화고에 도입해 운영한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올해 초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주요 전략인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의 주요 추진 과제로 선

정되면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어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기존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입학 전형 적용, 학급당 학생수 18명(현재 특성화고 21명, 마이스터고 18명), 1학년 운영학과에 대해 학급당 교원 2.4명 지원, 전문교과 교원 전보 2년 유예(기존 마이스터고와 동일), 자율학교 지정 추진 지원을 통한 교장공모 및 초빙교원 확대, 교육발전특구 예산 및 자체 예산 지원 등 기존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광주공업고는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13개 학급을 8개로 축소하고 AI반도체과 등 학과명을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변경하는 등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정으로 광주공고 졸업생 취업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공업고등학교가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계기로 제도약해 지역 직업교육이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나아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17년 연속...11억500만원 지원  
"대입 개편 전형설계 연구 강화"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7년 연속 선정되며 호남지역 대학 중 최고 금액인 11억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3주기(2022-2024)가 진행 중이며, 이번 단계평가는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하여 총 92개교에 579억원이 지원됐다.

조선대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 전형을 설계하고 개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 고교와 교육청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안착 및 지역고교생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상우 입학처장은 "다각적인 고교-대학연계 노력을 위해 올해 입학전형 연구·상담센터를 개편했다"며, "올해 사업을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설계 연구를 강화하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선대의 인프라를 지역 고교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